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6과 천국의 두 가지 실상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 사상은 전적으로 성경의 사상이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기원은 역시 성경이다. 다만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천국의 실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번 과에서는 성경이 계시하는 천국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천국이라는 말

천국이 전적으로 성경 사상이지만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말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37회 나타나고, 딤후4:18에 한 번 나타나서 모두 38회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37회 중에서 5회는 그냥 “나라”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다. 많이 그렇게 번역되었다. 그것은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인데, “왕국(Kingdom)”이라는 말이다. 즉 “바실류스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바실류스(βασιλεύς)는 왕(King)이라는 말이다. 그 다섯 번은 다음과 같다.

[마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13: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딤후4:18도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말이다. 이 말은 “나라”라고 많이 번역되었는데,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며”에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이다.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이다. 그것은 다음 성경 구절들이다.

[마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마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2번 있다.)

[마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마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11:12]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13: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13:31]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13: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13:52]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임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18: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18: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18: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19: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이다.

[마19: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19: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20: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들은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왕국 그 하늘의”이다. 즉 “그 하늘의 그 왕국”이다. 우리말이 되도록 하면 “그 하늘 왕국”이다. 이것을 한자로 쓴 것이 바로 천국(天國)인 것이다.

2.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마태복음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였다. 마태복음에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그러나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다. 마태가 천국이라고 기록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이다.

마태복음에도 네 번 이 말이 나온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 줄을 확인할 수 있다.

[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나라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한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씨 뿌리는 비유 등에 사용된 말들이 그렇다.

3. 왜 마태만 그렇게 기록하였는가?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마태는 유대인의 정서에 합당한 언어를 골라서 기록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에 담지 않는다.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발음까지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얼마 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도 거룩한 이름이라고 입에 담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 그들은 엘로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에 따라 하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런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아는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유대인들이 읽을 때 정서적 문화적 거부감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르 뜻하는 것이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4.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마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바실레이아)가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5.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루다”라는 말은 과거 명령형이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처럼 이 땅에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기도이다.

하늘에서 뜻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생각하면 이것을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12:9,10]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존재가 절대로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땅에서 사단과 그의 세력과 그의 영향력이 모두 완전히 없어지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서 사단의 세력과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되든지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되든지 동일하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예수를 믿는 각 개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6. 두 가지 천국

1) 인격천국

5번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은 각 개인이 이루어야 할 천국과 영원한 나라로서의 천국이 있다.

[눅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안”은 “엔토스(ἐντός)”인데 “중(中)에”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among, midst”이다.

이 말씀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마음에 천국이 있었겠는가.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뜻인데,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실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그의 생명과 인격과 생활에 마귀와 그의 모든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그는 천국의 인격이 된 사람이다.

성경은 사람을 나라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친다. 각 개인마다 나라이다.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다. 여기 “나라”는 “에드노스(ἐθνος)”인데, 민족, 국민,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라라고 번역이 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라이기보다는 국민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계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이다. 단수이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예수 안에서 바실레이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격천국을 이루는 것을 은혜의 천국이라고 표현한다. 이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는 은혜의 보좌에 계시면서 그의 은혜의 왕국이 된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뚜껑으로 표상된 시은좌(施恩座)의 실상이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도록 간구하시고 도우신다. 인격천국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다.

인격천국들이 이 세상에 모여서 예수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는 곳을 교회라 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천국에 들어오도록 봉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천국은 국토가 따로 없다. 다만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인격들이 될 때 이루어진 나라이다.

2) 영광의 천국

영광의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천국이 된 사람들만이 살게 되는 국토가 있는 나라이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들은 영광의 나라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를 위한 영광의 천국은 이 지구에 성립된다.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영토는 이 지구이다.

[단2:34,35]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에 건설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다.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 새 땅이 된 이 지구의 수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를 아담에게 주셨으니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지구를 회복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 중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마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나라에서 인격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불사불멸의 생명과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이다.

[빌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도 한다.

[고전15:42-44]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요일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된 이 지구에서 살게 되는 것은 인격천국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인격천국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다.

7.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야 한다.

[벧전1:5-7]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날까지 잘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빌2:12-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호흡마다 기도가 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으로 살자.